

뒀에 걸린 토끼와 날아간 비둘기: 수 브라이드헤드의 패배와 성취

박 해 린

토머스 하디(Thomas Hardy)의 『이름없는 주드』의 강렬한 여성 캐릭터인 수 브라이드헤드(Sue Bridehead)는 ‘책 읽는 여성’으로의 정체성이 가장 명확한 인물이자, 당대의 여성들이 겪었을 법한 거의 모든 문제를 껴안고 있는 인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들은 결혼과 신체의 속박에 대한 거부, 상상 혹은 판타지의 실현과 관련된 불안, 결혼으로 비롯되는 출산의 위협, 맺어지기 어려운 (혹은 맺어져서는 안되는) 남성들과의 관계 등이며, 당대의 다른 소설 속 여성인물들이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거리로 수는 작품 전체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맞서는 인물이다. 이 글은 수가 여성으로서 독립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한계, 다시 말해 여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에 수반되는 자연적, 사회적 제약들과 싸워나가는 노력을 살펴보며, 이러한 개인의 저항이 갖는 성취를 조명한다. 이 때 여기서 말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여성의 몸을 가진 개인에게 시대와 환경이 부여하는 역할, 생각, 행동 방식에 대한 개인의 순응 혹은 타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작품 속의 인물들, 주드(Jude)와 필롯슨(Phyllotson), 심지어 아라벨라(Arabella)와도 이 섹슈얼리티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 혹은 대비를 보이지만 그녀 고유의 완전성, 즉 자신의 삶과 감정에 대한 자기 결정권 또는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

수는 작품에서 외로운 인물이다. 그녀는 그녀가 관계 맺는 남성들 누구에 의해서도 완벽하게 이해받지 못한다. 그녀는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자기 실현을 원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의지는 여성의 몸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주드만큼이나 그녀 또한 삶을 갈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는 작품이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 주인공 주드보다 더 큰 존재감을 발휘하며 작품의 비극적인 섹슈얼리티를 뚜렷이 구현한다. 이와 같이 수가 여성으로서 생동적으로 부여 받은 이 섹슈얼리티의 한계에 대해 랭글랜드(Elizabeth Langland)는 다음과 같이 쓴다.

주드는 계급을 뛰어넘고자 하며, 수는 계급과 그녀의 성을 뛰어넘고자 한다. (...) 남성들은 언제나 꿈을 키워왔다. (...) 따라서 주드가 겪는 계급의 갈등은 조급도 그의 성격의 일관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수는 단순한 계급 갈등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성을 둘러싼 갈등이며, 여성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도록 기대되는 것 간의 갈등이다. 수에 대한 사회학적, 심리적 분석은 이 지점을 간과한다. 이러한 분석들은 그녀를 일종의 유형으로 간주하며, 그녀에게 불가피한 성격의 분열이 뒤따른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녀의 열망은 단지 분열된 성격의 증상으로만 남는다.

Jude aspires beyond his class; Sue aspires beyond her class and her sex... Males have always aspired... So, the class conflict Jude experiences in no way undermines the cohesiveness of his personality. Sue's is not simply a class conflict; it is a conflict of genders, a conflict finally between what woman can and is expected to do. The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analyses of Sue miss this point. They see her as a type and assume that the inevitable fragmentation of her personality follows. In this view, her aspirations are merely symptoms of her fragmented personality. (Langland, 20)

랭글랜드의 이러한 지적은 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존의 비평들의 출발점을 요약하며, 그녀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작품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독자에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작품에 대한 많은 비평들은 하디가 “아라벨라에 대한 대조, 즉 육체에 대비되는 정신”(that of counterpoint to Arabella: spirit against flesh; Heilman, 307)으로 수라는 인물을 창조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는데, 이와 같이 일종의 유형적 인물로 설정된 그녀의 출발점에 비해 실제로 작품에서 구현된 개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 인물을 이해하는 어려움이 따르며, 이러한 부조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수에 대한 평가가 갈린다. 블레이크(Kathleen Blake)에 따르면, “많은 비평가들은 그녀의 비관습성 기저에 매우 관습적인 면모가 있음을 지적”(A number of critics say that beneath her unconventionality Sue is really conventional; Blake, 711)한다. 예를 들어, 하일만(Robert B. Heilman)의 경우 “통렬할만큼 제도에 대해 명석한 수는 지속적으로 전통적인 패턴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The Sue who is devastatingly witty about institutions finds herself constantly acting in terms of traditional patterns; Heilman, 320)며 수의 모순성을 평하고, 작품을 심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섬너(Rosemary Sumner)의 경우, “하디는 수를 통해 감정과 지성 간 균형의 부재를 그리며, 이 부재는 본능적인 욕구의 억제로 발전한다”(Hardy shows in her a lack of

balance between intellect and emotions which develops into a suppression of instinctual drives; Sumner, 186)는 분석을 통해 수의 행동이 억눌린 욕구에서 발현된다는 병리적 관점의 해석을 내놓는다.

실제로 수의 행동은 일견 비일관성을 띠는 부분이 있으며, 주로 수가 주드와 교류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소위 모순적인 모습이 자주 드러난다. 그러나 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이러한 반복 혹은 경향을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넘어 표면적으로 제시되는 행동 이면의 동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서 있어 수가 인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개인으로서의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녀는 작품에서 연속적으로 세 명의 남성 인물과 관계를 맺으며, (비록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첫 이성 관계는 열여덟살 때 대학생과의 동거이다. 수의 입을 통해 주드에게 전달되는 이 관계는 기묘한 성격을 갖는데, 그녀는 “내 삶은 사람들이 특이함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완전히 형성되어 왔었다”(my life has been entirely shaped by what people call a peculiarity in me; 3.4)고 말하며, 이어서 스스로가 남성과 “그들의 책”(their books; 3.4)에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의 발언에 따르면, 그녀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성에게 갖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며, 여성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성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 대학생과의 관계를 활용한 인물이다.

하지만 수의 이러한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수는 자신과 대학생이 “거의 두 명의 남자처럼”(like two men almost; 3.4) 교류를 했다고 하지만, 그와의 동거를 회술하는 그녀의 말은 그녀가 얻고자 했던 책, 이를 통한 학습과 지성의 연마가 매끄럽지만은 않았음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대학생은 그녀에게 자신의 지식과 배움의 기회를 공유하는 대신 여자로서의 그녀가 제공할 수 있는, 아마도 섹스였을 가능성이 높은 교환물을 원했으며, 따라서 이 관계는 불안한 성적 긴장감에 근거한다. 수 또한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데, 그녀는 “여성이 남성을 허락하지 않는한”(unless she invites him; 3.4) 남성은 함부로 여성의 미덕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듯 보이지만, 이내 대학생이 자신에게 “애인”(mistress)의 역할을 요구했음을 밝힌다. 또한 그녀는 그의 죽음이 “자신의 잔인함”(my cruelty; 3.4)에 회한을 불러일으켰으며 그가 자신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하지만, 이 “잔인함”에 대한 고백은 그녀 역시 대학생과의 관계에서 모종의 문제를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아마도 대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는 그녀에게 했던 말일 것이며(또 이러한 불만은 그녀가 뒤이어 관계 맺는 다른 남성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도 되풀이 된다), 나아가 섹스에 대한 수의 비타협적인 태도가 그녀의 특이함을 구성한다는

점을 그녀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냉담”(cold-natured)하고, “무성”(sexless)하다고 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I won't have it), “정열적으로 에로틱한 시인들 중 몇몇은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자족적으로 살았다”(some of the most passionately erotic poets have been the most self-contained in their daily lives; 3.4)고 밝힌다. 이는 앞서 언급된 그녀의 무성성에 대한 반박으로 읽히며, 자신의 섹슈얼리티가 부과하는 관습적인 한계 혹은 요구에 타협함으로써 자신이 소모되는 것을 거부하는 그녀의 주체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발언은 그녀의 이러한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 즉 여성의 몸으로 추구하는 자기 실현, “자족적인” 삶의 추구에 필연적으로 외부의 압력이 개입할 것이라 느끼는 개인의 불안감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녀의 소위 비일관적인, 혹은 신경질적(neurotic)인 면모는 그녀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불안과 긴장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주체적인 결정권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교섭한다는 점에서 그녀는 용감하고 담대하다. 수는 작품 속에서 자신이 관계 맺는 상대에게 자신의 이러한 주체적인 개성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녀의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하며, 오히려 이야기가 진행될 수록 그녀는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놓인다.

그녀가 필롯슨과 맺는 관계는 대학생과의 동거보다 더 복잡한 층위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는 수와 필롯슨이 맺어지는 방식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때부터 작품은 앞서 주드와 아라벨라의 결혼에서 드러났던 갈등보다 더욱 근본적인 고민거리를 던진다. 우선 주드와 아라벨라의 결혼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갖는 교환 가치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거래 가능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라벨라는 거짓 임신으로 주드와의 결혼에 성공하고, (비록 성공적이지 않지만) 이로 인해 주드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의존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결합은 “인생의 동료관계를 견딜만하게 만들어주는 친밀감과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일시적인 감정에 기반한 영구적인 계약”(a permanent contract on a temporary feeling which had no necessary connection with affinities that alone render a lifelong comradeship tolerable; 1. 11)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오류를 지니며, 주드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욕망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대신, 이러한 욕망을 전달할 수 있는 아라벨라를 “완전하고 큰 동물”(complete and substantial animal; 1.6),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면을 보인다. 나아가 아라벨라와의 결혼에서 맞본 이러한 실패는 주드가 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다면 필롯슨과 수의 관계가 주드와 아라벨라의 결혼이 가졌던 문제 외에 어떤

집에서 새로운 갈등을 낳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필롯슨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의 관계는 부부로서 학교를 운영하며 “함께 적절한 소득을 올리는”(make a good income between us; 3.1) 경제적 공동체와 가깝다. (이 부분에서 수와 아라벨라의 차이점, 즉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 여부가 이들의 결혼을 가르며, 이를 수가 필롯슨과의 관계에서 섹스를 거부할 수 있는 일종의 기반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드는 이러한 수에 대해서 “그녀는 결혼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She does not realize what marriage means; 3.7)고 탄식하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지적으로 보인다. 비록 자신의 입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수는 대학생과의 관계에서 섹스를 둘러싼 남녀의 갈등을 이미 겪은 인물이다. 따라서 “그녀가 남성들의 본성의 그러한 측면에 대해 어린아이처럼 무지하기에 이들에게 대담한”(Perhaps Sue was thus venturesome with men because she was childishly ignorant of that side of their natures; 3.7) 모습을 보인다는 주드(혹은 그의 관점을 전달하는 화자)의 서술은 어린 아이처럼 그녀가 무지하다는 측면에서는 틀리지만, 그녀가 필롯슨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대답하며 나아가 (주드와 화자의 시선에서는) 무모하게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수의 이러한 담대한 결정은 이내 그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갈등을 그녀에게 가져다 준다. 수와 주드는 드루질라(Drusilla) 고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들의 고향인 메리그린(Marygreen)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때 수는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을 주드에게 드러낸다. 그녀는 왜 불행한가? 그 이유는 그녀가 이전에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결혼의 속성에서 비롯된다. 수와 필롯슨의 결혼은, 주드와 아라벨라의 결혼에서 드러났던 남성의 경제적 수단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맞바꾸는 계약적 속성과는 또다른 층위의 문제를 갖는다. 수는 필롯슨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이 처해진 이 관계가 “주택 문제, 계급 나누기, 징세, 자녀의 토지와 재산 상속, 아버지를 밝혀야 하는 당위 등에 관계된 물질적인 편리함에 기반한 부정직한 계약”(a sordid contract, based on material convenience in householding, rating, and taxing, and the inheritance of land and money by children, making it necessary that the male parent should be known; 4.2)이며, 결혼을 통해 맺어진 자신과 필롯슨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단위에 편입되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독립적인 그녀는 자신의 주체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존중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적 질서에 복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아가 그녀는 필롯슨이 “확실한 결점이 없음”(no definite fault) 에도 그에 대해 “신체적인 거부”(physical objection)를 느낀다고 이야기 하는데 수의 이러한 고백은 그녀의 신체적, 혹은 성적인 불안감을 암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록 그 이유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지만) 본인의 욕망이 전혀 투

영될 수 없는 상대방과 계약으로 묶이는 것에 대한 거부를 보여준다. 또한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상대가 원할 때마다 그에게 반응해야 하는 필요”(the necessity of being responsive to this man whenever he wishes; 4.2)이며 자신의 “자발성”(voluntariness)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 그 자체이다. 즉, 그녀의 이러한 탄식은 (대학생과의 관계와는 달리) 결혼이라는 의식과 제도로 수렴되는 법적, 사회적 계약에 묶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욕구와 의지에 대해 상대방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 데에 대한 개인의 불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가 주드에게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I had never thought out fully what marriage meant, even though I knew; 4.2)고 말할 때, 그리고 이어서 “스스로가 매우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I thought I was very experienced; 4.2)고 토로하는 부분은 그녀의 무지에 대해 탄식했던 주드가 절반은 옳았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가 갖는 불안감과 작품의 다른 인물들이 보이고 있는 그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심지어 작품 화자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우선 수를 포함하는 당대의 여성들에 대한 화자의 서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십 분 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 누웠다. 그들의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얼굴은, 긴 기숙사 중간중간에 걸려 널올거리는 가스등을 향해 있었고, 모든 얼굴에는 “나약한 이”라고 새겨져 있는 표가 비취지고 있었다. 그것은 거침없는 자연 법칙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그들이 자발적인 마음과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강해질 수 있는 별이자, 이들에게 주어진 성의 별이었다. 이들은 아름답고 암시적이며 애처로운 광경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이 모습이 지닌 연민과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불의, 외로움, 임신, 사별 같은 세월의 폭풍과 흔적 가운데서, 충분히 누려지지 못하고 자신들을 스쳐지나가게 했던 경험을 이들이 다시 떠올리기까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Half an hour later they all lay in their cubicles, their tender feminine faces upturned to the flaring gas-jets which at intervals stretched down the long dormitories, every face bearing the legend “The Weaker” upon it, as the penalty of the sex wherein they were moulded, which by no possible exertion of their willing hearts and abilities could be made strong while the inexorable laws of nature remain what they are. They formed a pretty, suggestive, pathetic sight, of whose pathos and beauty they were themselves unconscious, and would not discover till, amid the storms and strains of after-years, with their injustice, loneliness, child-bearing, and bereavement, their minds would revert to this experience as to something which had been allowed to slip past them insufficiently regarded. (3.3)

이에 대해 크레이머(Dale Kramer)와 같은 연구자는 『주드』의 화자가 감상주의(sentimentalism)에 치우쳐져 있다는 논지하에, 굳이 이야기의 상황에 필요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의 고민에 대한 화자의 논평이 임의적으로 삽입되었다는 해석을 제기한다. (Kramer 153) 수를 포함한 여성들의 운명에 대해 화자가 동정적인 시선과 태도를 견지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랭글랜드는 화자의 이러한 서술이 오히려 여성에서 지워진 “불의, 고독, 임신, 사별”과 같은 무거운 짐들을 “거침없는 자연법칙”의 결과로 단순화 시킨다고 지적한다(Langland 21). 화자의 이러한 서술이 은연중에 독자들에게 하여금 여성들이 겪게되는 불행이 그저 필연적인 상황이자 인내해야 하는 시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여성의 문제적 상황들이 정확히 작품 속에서 수가 겪게 되는 상황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서술자의 일견 동정적인듯 보이는 시선은 결국 개인으로서 그녀가 드러냈던 행동과 태도의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서술자의 이러한 복잡한 시선은 4부 3장에서 주드와 키스를 통해 서로 간의 열정을 확인한 뒤 이를 후회하며 필롯슨에게 돌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서술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때, 남편을 불쾌하게 여기는 그 연약하고 작은 아내, 천상의 존재같고 섬세한 신경의 예민한 여자, 필롯슨과의, 아마도 모든 남자들과의 결혼 관계가 부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그 기질과 본능이 매우 적합하지 않은 그녀가 단속적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으며 그녀의 눈에는 가망 없는 시선과 걱정으로 피로가 가득했다.

Then the slim little wife of a husband whose person was disagreeable to her, the ethereal, fine-nerved, sensitive girl, quite unfitted by temperament and instinct to fulfill the conditions of the matrimonial relation with Phillotson, possibly with scarce any man, walked fitfully along, and panted, and brought weariness into her eyes by gazing and worrying hopelessly. (4.3)

이 부분에서 화자는 필롯슨과 주드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시되는 수에 대한 묘사, 즉 연약하고, 예민하고, 그 정체가 잡히지 않아 이 세상의 존재 같지 않다는 성격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수가 언급될 때 등장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수라는 인물의 개성 혹은 독립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비현실성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녀와 작중 인물들 간, 그리고 그녀와 독자 간 심리적 거리를 더욱 멀게 한다. 따라서 화자가 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녀의 실패를 완성하는 남성 인물들의 시선을 공유하며, “아마 어떤 남자와도”(possibly with scarce any man)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녀를 논평하는 부분은 수에게 지워

지는 결혼 관계의 부당함을 간과하는 지적으로 읽힐 뿐만 아니라 그녀를 작품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수와 가장 복잡한 관계를 맺는 인물은 어디까지나 작품의 주인공인 주드이며, 수의 실패를 완성시키는 인물도 바로 그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주드의 문제점은 그가 지나친 이상에 사로잡혀있다는 점이다. 주드가 크라이스트민스터(Christminster)에 가는 표면상의 이유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이며, 실제로 주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가 크라이스트민스터로 출발하는 작품의 2부 첫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크라이스트민스터로 가겠다는 궁극적 충동에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그러하듯이 지성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에 더욱 관계된 흥미로운 이유가 있었다. 알프레드스톤에서 하숙을 하던 도중 그는 대고모를 보기 위해 메리그린에 갔고, 그녀의 벽난로 장식대 위 구리 촛대 사이에 놓여진, 모자 챙 아래에 후광처럼 빛나는 주름 천이 달린 큰 모자를 쓴 예쁜 소녀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았다. (...) 그러나 이 사진은 그를 사로잡았으며, 궁극적으로 그의 친구인 학교 교사를 따라가겠다는 잠재적 결심을 재촉하는 요소가 되었다.

“The ultimate impulse to come had had a curious origin—one more nearly related to the emotional side of him than to the intellectual, as is often the case with young men. One day while in lodgings at Alfredston he had gone to Marygreen to see his old aunt, and had observed between the brass candlesticks on her mantelpiece the photograph of a pretty girlish face, in a broad hat with radiating folds under the brim like the rays of a halo. [...] But it haunted him; and ultimately formed a quickening ingredient in his latent intent of following his friend the schoolmaster thither. (2.1)

이 대목에서 쓰이는 감정, 충동과 같은 단어는 크라이스트민스터를 향하는 그의 정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수와 (비록 간접적이지만) 처음 만나는 이 장면에서 그는 액자 속에 들어있는, 크라이스트민스터라는 이상적인 곳에 살고 있는 예쁜 소녀의 이미지에 즉각적으로 사로잡히며 심지어 그녀가 쓰고 있는 모자와 모자의 장식마저 후광처럼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 (이 때 쓰이는 후광이라는 표현은 1부 3장의 마지막에서 주드가 크라이스트민스터를 바라보면서 “빛의 도시”(City of Light; 1.3)를 꿈꿀 때 쓰였던 단어이기도 하다.) 이후 도시에 도착한 주드는 그녀를 몰래 지켜보면서 도시에 대해 자신이 상상하던 가치들을 그녀에게 투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의 시선에 따르면 종교 용품 가게에 앉아있는 수는 “달콤하고 신성하고 기독교적인 일”(A sweet, saintly, Christian business; 2.2)을 하는

인물이며, 주드의 의식 속에 수는 “호기심이 드는 환상적인 백일몽을 엮어내는 형태의 이상적 인물”(an ideal character, about whose form began to weave curious and fantastic day-dreams; 2.2)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드에 비해 서술자는 주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킨다. 크라이스트민스터에 도착해 도시를 걷는 주드를 제시하는 2부 2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위인들의 정신은 사라졌다.”(The spirits of the great men had disappeared.) “밤에는 완벽하고 이상적이었던 것은 낮이 되니 거의 흠집난 현실이었다.”(What at night had been perfect and ideal was by the day the more or less defective real.) 서술자는 때때로 주드가 이상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그리지만, 이는 찰나일 뿐 지속되지 않는다.

한순간 주드에게 계시가 찾아왔다. 이는 이 곳 석재장에도 대학 내 가장 고귀한 곳에 위치한 공부로 이름을 알리는 것의 고귀함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노력의 중심이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오래된 생각의 압박감에 이내 이를 잃고 말았다.

For a moment there fell on Jude a true illumination; that here in the stone yard was a centre of effort as worthy as that dignified by the name of scholarly study within the noblest of the colleges. But he lost it under stress of his old idea. (2.2)

이처럼 주드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주드의 인지에 대해 비거(Penelope Vigar)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하디의 방법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진실 사이, 현실과 상상된 이상 간의 차이를 집어내는 것”(All through the novel Hardy’s method is to point the difference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truth, the real and the imagined ideal; 194)이며, 이에 따라 인물들에게 “현실은 언제나 꿈꾸던 것보다 열등한 것으로 나타난다”(Reality always proves inferior to the vision; 194)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주드의 이러한 왜곡된 시선 혹은 현실 인식의 실패는 그가 수를 대하고 이해하는 태도에도 적용된다.

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처럼 독학을 통해 지성을 연마하고 자기 실현을 꿈꾸는 주드와 함께 하고자 한다. 작품에서 수는 그에게 “누군가를 높은 목표로 올려 그가 고귀해지기를 정말로 원했”(But I did want and long to ennoble some man to high aims; 3.4)으며, 주드를 만났을 때 “네[주드]가 나의 동지가 되길 바라는 것을 알았다”(knew you wanted to be my comrade; 3.4)고 고백한다. 또한 필롯슨과 달리 주드는 그녀가 이성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4부 1장에서 주드는 그를 감명시켰던 성가의 피아노 연주를 수에게 부탁하고, 성가를 연주하는 수는 그녀는 스스로도 놀라

울 정도로 감동을 받고 주드의 손에 자신의 손을 먼저 내어주는 풍부한 감정을 내비친다. (She, like him, was evidently touched - to her own surprise - by the recalled air; and when she had finished, and he moved his hands towards hers, it met his own half-way; 4.1) 이처럼 수는 주드 앞에서 때때로 섬세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인지하고 있는 수이지만, 불행히도 주드는 이를 온전하게 포착하고 반응하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장면과 같이 수와 주드가 교감하는 순간은 찰나이며, 이를 금세 뒤따르는 것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드의 모습이다. 그는 크라이스트민스터와 같은 실현되지 않는 이상에 사로잡힌 시선으로 그녀를 규정하거나,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폭만큼 그녀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서술자의 태도와 관련한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주드는 작품에서 끊임없이 그녀를 천상의 존재이자 “정령”(aerial; 4.3) 같고 “육체가 거의 없는”(hardly flesh; 4.5) 대상으로 논평한다. 또한 수와 자신의 관계에서 오는 불만을 토로하는 순간에는 그녀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변덕을 부린다고 그녀의 행동과 발언을 마치 일반 여성들의 의례적인 반응처럼 일 반화 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그가 수를 바람둥이로 규정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Sue, I sometimes think you are a flirt; 4.1)

그러나 수는 주드의 이러한 부당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 나를 오해할 바에는 가줘. 난 네가 것처럼 잔인하게 얘기한 것의 반대야. 아,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해. 하지만 너한테 진심을 말할 순 없어. 내 충동에 내가 어떻게 굴복하는지를 안다면, 또 내가 얼마나 발산해서는 안 될 매력을 갖추지 않았으면 하고 느끼는지를 안다면 넌 놀랄거야. 어떤 여자들의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듯,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 또한 마찬가지로. 최후의 경우, 이들은 그녀들의 애정을 받도록 주교가 허락한, 지정된 침실의 주인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해. 하지만 주드, 너는 너무 단순해서 널 이해하지 못해!

“Yes—you must go away, for you mistake me! I am very much the reverse of what you say so cruelly—Oh, Jude, it was cruel to say that! Yet I can’t tell you the truth—I should shock you by letting you know how I give way to my impulses, and how much I feel that I shouldn’t have been provided with attractiveness unless it were meant to be exercised! Some women’s love of being loved is insatiable; and so, often, is their love of loving; and in the last case they may find that they can’t give it continuously to the chamber-officer appointed by the bishop’s license to receive it. But you are so straightforward, Jude, that you can’t understand me! (4.1)

주드의 비난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그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단호히 선언하는 수는 “어떤 여자들”의 이야기를 빌어 자신 또한 사랑을 주고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하다고 밝힌다. 나아가 그녀는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이 필롯슨에게 부여한 애정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는 부당한 것임을 주장한다.

위와 같이 주드가 수에 대해 비난 혹은 불만족을 표하고, 수는 다시 주드의 지적을 반박하며 자신을 변호하는 대화 패턴은 작품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이들의 이러한 갈등은 섹스를 둘러싸고 가장 팽팽하게 대치한다. 필롯슨을 떠난 수는 주드와 처음으로 밤을 단둘이 보내는 상황을 맞아 “여성의 자연적인 수줍음”(a woman's natural timidity; 45)을 언급하는데, 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거부했던 일반화된 여성의 특성을 가져오는 일견 모순된 모습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의 말들을 단순한 부끄러움 혹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자 하는 당대의 관습성(conventionality)으로 읽는 것은, 작품 속 주드처럼 궁극적으로 수를 오해하는 해석을 초래한다. 수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은 (서술자의 서술도, 주드의 표현도 아닌) 오직 그녀의 입을 통해 목소리를 낼 때 뿐인데, 우리는 불행히도 그녀에게 주어진 자기 표현의 유일한 수단인 이 언어마저 그녀의 개성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관습과 언어가 이미 여성의 독립적인 개성과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규범이자 질서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에 대해 자신을 둘러싼 인물 및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부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레(Phillip Mallet)는 이에 대해 “하디는 사회가 부여하는 기성 가치가 주드와 수의 의식과 분리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언어와 존재에 스며들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what Hardy suggests is that the values of the society are not ‘out there,’ distinct from the consciousness of Jude and Sue, but permeate their language and their being; 217)고 지적하며, 블레이크의 경우 “수가 관습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녀는 가장 비관습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을 하디가 보여주고 있다”(he[Hardy] shows that even when Sue appears to act conventionally, she often does so out of the most unconventional of motives; 721)고 쓴다. 즉, 외견상 드러나는 수의 관습적 양상이 감추고 있는 것은 “그녀의 모순이 깊이와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삶과 자유에 대한 인상적일만큼 고유한 실험을 나타낸다.”(Sue's contradictoriness has depth and coherence. It represents an impressively original experiment in life and freedom; Blake 721)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는 이를 극복할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그녀는 대학생과 필롯슨과의 관계를 거치며 여성의 몸을 가진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섹슈얼리티 및 자주적 독립성에 대한 위협과 불안을 명확히 인지하

게 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주드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꿈꾼다. 그렇다면 주드와의 관계가 앞의 두 관계보다 개선될 수 있을것인지, 혹은 더욱 악화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의 관계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살피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수는 주드와의 동거 생활을 통해 앞의 두 관계에서 그녀가 모색했던 학습하는 여성 이자 결혼 계약에 묶이지 않은 자주적인 여성의 삶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때 그녀와 주드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긴장은 바로 섹스의 문제이다. 주드는 여성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할 수 있었던 아라벨라와의 관계는 역겨운 것, 음란한 것으로 묘사하고 수를 그 정반대의, 이상화된 인물로 위치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남녀 관계의 관습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물이며 이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아라벨라와의 결혼을 따르고, 나아가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는 근거에 따라 그녀와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보내는 행동을 낳는다. 작품의 5부 1장에서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완료하자 주드는 수에게 바로 결혼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수는 결혼이라는 “철의 계약이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소멸시킬”(an iron contract should extinguish your tenderness for me, and mine for you; 5.1)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제도의 권위로 용인 받은 관계는 “끔찍하고 불결한”(horrible and sordid; 5.1) 것이라며 그를 만류한다.

그러나 주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힘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비록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한달짜리의 즐거움과 인생 전체의 불편함을 함께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걸 매우 잘 알면서 말야.”(People go on marrying because they can't resist natural forces, although many of them may know perfectly well that they are possibly buying a month's pleasure with a life's discomfort; 5.1) 이 때 주드가 언급하는 이 “자연적인 힘”은 앞서 작품의 서술자가 여성들이 깊어져야 하는 “자연의 법칙”과 일견 유사한 점이 있는데, 이는 그저 주어진 것에 대한 저항의 노력을 결국 불필요한 낭비로 인식하는 관습이자 삶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수는 자신의 능력껏 이를 최대한 저지시키고자 노력하는 용감한 여성이며, 이에 대해 괴츠(William R. Goetz)는 다음과 같이 쓴다. “섹스에 대한 욕망이 ‘자연적인 힘’이라는 호소는 수를 설득시키는 데 쓰일 수 없다. 그녀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성적인 활동의 이미지에 특별히 혐오감을 느끼는 인물이기 때문이다.”(The appeal to the ‘natural forces’ of sexual desire is not calculated to convince Sue, who, as we have seen, is particularly repelled by the image of a sexual activity enforced by a code of law; 205) 수는 섬세한 감각과 애정을 분명히 지니고 있는 인물이지만, 섹스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결정권이 완전히 박탈당해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가 누구이든, 어떤 관계에 함께하고 있든지 간에 이를 끝까지 거부하는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강한 의지는 둘 간의 긴장을 필연적으로 낳는다. 이들은 함께 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not in their sense; 5.1) 상태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한다. 그러나 주드와의 관계에서 수가 교섭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든다. 필롯슨의 곁을 떠난 수는 주드와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하고자 하지만, 법적 이혼을 완료한 이후의 주드는 수와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결합 방법, 즉 결혼과 섹스를 그녀에게 더욱 요구한다. “이른바 이혼을 통해 획득한 자유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대신 이들 상황의 어색함을 더욱 증가시킨 것이다.” (The freedom supposedly won through divorce does not emancipate them but only increases the awkwardness of their situation; Goetz, 204)

이들의 위태로운 균형은 아라벨라의 등장으로 추가 기울고 만다. 수는 아라벨라를 보자 직감적으로 그녀가 자신과 정반대의 “육체적이고, 음란한 여자,” “저급한 열정을 가진 여자”(a fleshly, coarse woman; low-passioned woman; 5.2)라는 점을 깨닫고, 위협을 느낀다. 그리고 주드는 이를 빌미삼아 수에게 자신의 욕심을 밀어붙인다.

아마 나도 운도 없고 음란한 사람이겠지! 수,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처럼 부당한 대접을 받으며 너무 오랫동안 너의 장단에 맞춰주기만 했어. 내 안의 최선과 가장 고귀한 것은 너를 사랑해. 또 모든 저열한 것들로부터 벗어난 너의 자유는 나를 고양시켰고 내가, 또 어떤 남자도 1년 혹은 2년전에 할 수 있으리라 꿈꾸지 못했던 것을 가능케 했어. (...) 나는 언제나 네가 원하는대로 맞춰주느라 자제를 발휘해야 했어. 한 집에 살면서, 우리 사이의 영혼은 없었지.

Perhaps I am coarse too, worse luck! I do love you, Sue, though I have danced attendance on you so long for such poor returns! All that's best and noblest in me loves you, and your freedom from everything that's gross has elevated me, and enabled me to do what I should never have dreamt myself capable of, or any man, a year or two ago... I have exercised some little restraint in always giving in to your wishes—living here in one house, and not a soul between us. (5.2)

이 부분에서 주드는 자신의 이상적인 동지이자 연인인 수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아라벨라와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저열하고”(gross) “음란한”(coarse) 욕구를 인정하는 발언을 통해 수를 불안하게 한다. 제이코버스(Mary Jacobus)는 이에 대해 “수의 중요한 무기는 주드에 대한 그녀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끌림이자 도덕적인 우위이지만, 주드의 무기는 단순히 다른 데로 향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다”(Sue's chief weapons are her undoubted attraction for Jude and her moral advantage: Jude's weapon is simply his ability to take himself

elsewhere; 314)라고 쓴다. 수는 주드에게 있어 아라벨라가 단순히 법적 결혼의 상대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욕구를 나누고 충족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드는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 앞서 언급한 소위 “자연적인 힘”을 따를 수 있는, 또 수의 보호자이자 남성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며, 수는 그녀의 타협이 불러올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면서도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냉담하고, 무성의 존재가 아니야. 널 멀리 하기 때문에 그런거야? 니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해! 두고봐! 난 너의 것이야. 그렇지 않아? 포기할게!”(I am not a cold-natured, sexless creature, am I, for keeping you at such a distance? I am sure you don't think so! Wait and see! I do belong to you, don't I? I give in!; 5.2) 수는 아라벨라를 찾으러 나가려는 주드를 붙잡고 그가 그녀를 운연 중에 몰아세울 때 사용했던 언어를 빌려 자신의 애정을 그에게 증명하고자 한다. 상대를 붙잡기 위해 자신의 보루를 포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드는 “우리 결혼을 내일, 아니면 네가 원하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할”(And I'll arrange for our marriage tomorrow, or as soon as ever you wish; 5.2)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타의에 의해 자신의 의지를 꺾게 된 수는 붕괴와 몰락을 향하게 된다. 즉, “성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동반자 관계의 가능성을 거부당한 수는, 그 관계를 떠나거나, 우정과 허락을 박탈하거나, 허락당한테에 대한 몫을 치르기 위해 자유롭지 않은 채 죄책감을 갖고 성적인 역할에 굴복해야만 한다.” (Denied the possibility of a gender-free comradeship, Sue must either leave the relationship, and forfeit friendship and approval, or surrender to a sexual role, guiltily, not freely, as the price to be paid for being approved; Mallet 219) 수는 주드를 떠나는 대신 그의 곁에 남는데, 이는 타협의 결과를 피하지 않고 맞서는 그녀 스스로의 선택인 동시에 이들의 섹스를 그린 5부 1장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는 그녀의 운명을 연결한다. 바로 주드와 아라벨라 사이에서 생겨난 아이, 리틀 파더 타임(Little Father Time)이다.

수의 희생, 혹은 타협으로 균형이 망가진 주드와 수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결말의 비극은 5부 5장에서 다루고 있는 웨섹스 농업 박람회(Wessex Agriculture Show)의 에피소드에서 드러난다. 장미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수, 그리고 그런 그녀를 둘러싼 주드와 리틀 파더 타임은 제각각의 태도를 드러낸다.

대개는 창백한 수의 뺨은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장미의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즐거운 광경, 분위기, 음악, 그리고 주드와 함께하는 외출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그녀의 피를 흥분시켰고 그녀의 눈을 생기로 빛나게 했다. 그녀는 장미를 사

랑했고, 아라벨라는 다양한 장미의 이름을 살피며 꽃에 1인치 정도 가까이 얼굴을 대고 향을 맡느라 주드의 의지에 맞서 그를 지체시키고 있는 수를 볼 수 있었다.

“아름다워라. 얼굴을 물어보고 싶어.”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꽃들을 건드려서는 안될 거야, 그치 주드?”

Sue's usually pale cheeks reflecting the pink of the tinted roses at which she gazed; for the gay sights, the air, the music, and the excitement of a day's outing with Jude had quickened her blood and made her eyes sparkle with vivacity. She adored roses, and what Arabella had witnessed was Sue detaining Jude almost against his will while she learnt the names of this variety and that, and put her face within an inch of their blooms to smell them.

“I should like to push my face quite into them—the dears!” she had said. “But I suppose it is against the rules to touch them—isn't it, Jude?”

로렌스(D. H. Lawrence)를 비롯해 작품에 대한 많은 비평들은 대부분 이 장면에서의 수가 예외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한다. 성과 속을 동시에 아우르는 풍부한 상징의 장미라는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 수는 자신의 감각과 생기를 증명하며, 이는 작품에서 그녀를 한 쪽으로만 규정했던 서술자와 필롯슨과 주드의 시선에 정면으로 배치 되는 면모이다. 즉, 여성으로서 그녀가 갖는 감정의 섬세함과 욕구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에 대한 해석은 수를 긍정하는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갈린다. 제이커부스와 블레이크의 경우 얼굴을 갖다대도 될지 질문하는 수를 “살짝 밀어”(little push; 5.5) 그녀의 감정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주드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둘 간의 사랑과 행복이 이 장면에서 드러난다고 보지만, 모건(Rosemarie Morgan)의 경우는 반대의 해석을 보인다. “다르게 말하면, 이 장면에서의 수는 주드의 이상과 매우 공개적으로 어긋난다. 그녀는 무성이 아니지만, 성적으로는 좌절했을지도 모른다.”(In other words, this is a Sue that conflicts quite openly with Jude's ideal. Sexless she is not. Sexually frustrated she may be; 152)

수가 주드와의 섹스를 거의 강제적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성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그녀가 갖는 고유한 불안과 감정이 그녀의 파트너에게 거의 이해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는 수에게 뿌리 깊은 좌절감을 낳는다. 장미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녀에게 행복하냐는 질문을 던지는 주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왜? 멋진 박람회 왔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Why? Because you have come to the great Wessex Agricultural Show—or because we have come?; 5.5) 그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눈에는 낯선 수의 감각적 욕망과 그

표현을 있는 바르게 인지하지 못한 채, 그녀의 심리 상태를 자신의 관점에서 편리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그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수는 “넌 언제나 모든 모순점들에 대해 내가 고백하도록 만들려고 한다”(You are always trying to make me confess to all sorts of absurdities; 5.5)고 답한다. 이 발언은 주어진 언어의 한계, 그리고 상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그녀의 감정과 욕구가 주드에게는 언제나 “모순점”(absurdities)일 뿐임을 깨달아버린 수의 좌절감을 담고 있다.

그리고 리틀 파더 타임이 있다. 그는 “이들이 며칠 내에 모두 시들어버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꽃들이 매우 좋을 것”(I should like the flowers very very much, if I didn't keep on thinking they'd be all withered in a few days; 5.5)이라는 말을 남기며 이 에피소드를 닫는데, 이는 활짝 핀 향기로운 장미로 상징되는 감각과 욕구의 충족이 수와 주드 양쪽 모두에게 결코 평화롭게 달성될 수 없다는 경고처럼 읽힌다. 수와 주드는 자신들의 이상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이들은 첫째로 사회적 질서에서의 편입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즉 결혼이라는 제도적, 계약적 관계로 맺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 하지만 더 중요한 두번째 문제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슈로, 이는 이 관계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수가 주드와의 관계에서 홀로 부여받는 짐이다. 자신의 몸이 부여받는 이 고난에 대해 수가 선택하거나 교섭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그녀의 임신과 출산은 리틀 파더 타임의 비극적인 사건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드와 서술자의 입을 통해 제시되었던) 자연적인 법칙 혹은 힘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떠밀린 타협의 결과는 결국 개인으로서 자신의 주체성과 완전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녀를 완벽하게 패배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작품의 비극적 결말을 추동하는 핵심은 바로 수와 주드 사이에 존재하는 아이들의 운명이며, 블레이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쓴다.

사랑의 채무는 아이들로 인해 그 형태를 갖는다. 그녀는 주드와의 행복한 시간 동안 자신의 열정에 대해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다. (...)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열정이 가져오는 결과에 의문을 갖는다. 그리고 아이를 갖는 여성으로서, 그녀는 이 의문은 그녀에게 더 큰 무게를 갖는다.

The liability of love is made flesh in children. Sue is not ashamed of her passion during her happy time with Jude... But she does question the result of passion. Since the woman bears the children, she bears the question more heavily. (723)

수는 작품 속 화자가 일찍이 예고했듯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제를 부여 받는다. 그리

고 이 결과는 그녀에게 매우 파괴적이다. 작품에서 수의 아이들은 이름이 없을 뿐더러 거의 아무런 설명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들은 순전히 수가 겪게 되는 비극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만 쓰이며, 이는 독자로 하여금 오히려 그녀의 결말을 철저한 인과 관계로 읽게 한다. 수의 선택인 주드와의 애정은 이 한 쌍의 사회적 몰락을 낳은 요인이며, 강요된 타협인 섹스에 따르는 결과는 아이들의 죽음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가 작품의 종반부에서 보이는 모습, 다시 말해 필롯슨과 다시 결혼을 하고 그의 침실로 향하는 장면은 일견 섹스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포기한 모습으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작품의 이러한 결말을 자연적, 사회적 질서에 저항하던 예외적 개인에게 예비된 징벌이자 시련으로만 읽는 것은 수가 이뤄낸 성취를 간과하는 것이다. 수는 나름의 선택, 그리고 강제된 타협을 거쳐야 했던 순간들의 축적이 그녀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다줄 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더욱 치열하게 저항한다. 랭글랜드가 쓴 대로, “주드와 필롯슨으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압력에 맞서 그녀의 삶은 놀라운 온전함을 보여준다”(The integrity of her life in the face of enormous pressures from Jude and Phillotson - is remarkable; 22).

심지어 필롯슨에게 돌아가면서도 수는 주드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아직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그와의 결혼이 “단순히 교회의 결혼”(only church marriage; 6.8)임을 밝힌다. 수는 아이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의 출발이 결국 자신의 선택과 타협에서 초래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는 이제 나 자신을 극복했다”(But I've got over myself now; 6.8)는 말을 남기며 결혼이라는 제도가 부과하는 억압을 다시 스스로에게 짐 지우는 길을 선택한다. 이는 결국 실패조차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그녀의 (거의 병적인) 자기 판단에 입각한 주체성을 드러낸다. 작품 속에서 수는 한밤중 뒷에 걸린 토끼의 울음소리에 잠을 깨고 슬퍼한다. 벗어나고자 저항할 수록 살을 더 파고드는 뒷의 힘은, 온전한 자신의 주체성에 대한 자기 실현과 보존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수를 중국에는 덮치고 마는 운명처럼 읽힌다. 그러나 수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시련 앞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키우던 비둘기들을 남몰래 풀어주는데, 이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당한 연약한 생명체에 대한 그녀의 연민과 내면의 용기를 보여준다. 이처럼 주체적 개인으로서 수가 이뤄낸 성취의 위대함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패배에서 그 빛을 발한다.

Works Cited

- Blake, Kathleen. "Sue Bridehead, 'The Woman of the Feminist Movemen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18.4 (1978): 703-726. *Jstor*. Web. 30 Apr 2014.
- Goetz, William R. "The Felicity and Infelicity of Marriage in *Jude the Obscure*." *Nineteenth-Century Fiction* 38. 2 (1983): 189-213. *Jstor*. Web. 08 May 2014.
- Hardy, Thomas. *Jude the Obscure*. London: Penguin, 2012. Print.
- Heilman, Robert B. "Hardy's Sue Bridehead." *Nineteenth-Century Fiction* 20.4 (1966): 307-323. *Jstor*. Web. 11 Jun 2014.
- Jacobus, Mary. "Sue the Obscure." *Essays in Criticism* 25. 3 (1975): 304-28. *Oxford Journals Online*. Web. 11 Jun 2014.
- Kramer, Dale. *Thomas Hardy: The Forms of Tragedy*. Detroit: Wayne State UP, 1975. Print.
- Langland, Elizabeth. "A Perspective of One's Own: Thomas Hardy and the Elusive Sue Bridehead." *Studies in the Novel* 12. 1 (1980): 12-28. *Jstor*. Web. 11 Jun 2014.
- Mallet, Phillip. "Sexual Ideology and Narrative Form in *Jude the Obscure*." *English* 38. 162 (1989): 211-24. *Oxford Journals Online*. Web. 11 Jun 2014.
- Morgan, Rosemarie. *Women and Sexuality in the Novels of Thomas Hardy*. London: Routledge, 1988. Print.
- Sumner, Rosemary. *Thomas Hardy: Psychological Novelist*. London: Macmillan, 1981. Print.
- Vigar, Penelope. *The Novels of Thomas Hardy: Illusion and Reality*. London: Atholone P, 1974. Print.

ABSTRACT

A Rabbit Caught in a Gin and Pigeons
Let Loose:
Defeats and Accomplishments of Sue Bridehead

Helin Park

Thomas Hardy's *Jude the Obscure* presents an unforgettable heroine, Sue Bridehead, who is faced with all the limitations that her contemporary women might have had. These restraints, such as marriage and liability of childbirth, are problematic in that they require her to be obedient to the roles and expectations which society imposes on women. In line with this, some scholars for some time read her character as conventional for her outright rejection of sex or psychologically unstable for her fitful changes towards other characters. However, this paper refutes those analyses and argues that Sue fiercely defies these obstacles no matter how oppressive they are; by her relentless resistance, she comes through as an impressively courageous individual in spite of her tragic defeat in the end. And the means of accomplishing her self-fulfillment as an independent being are her own studies, and this aspiration is what makes her continue to engage in a series of relationship with different male characters in the novel.

However, what complicates and aggravates her situation is that these relationships turn out to be more violating on her individuality than she has expected. Though fulfilling in terms of attaining appropriate resources for her betterment in knowledge, her first relationship with a college student at the age of eighteen alarms her of the anxieties about her sexuality, rendering her unyielding to possible advances of male on her female body. However, this does not deem her sexless or asexual, but rather reveals her independence and strong will to not compromise with conventional expectations towards women. This determination of not compromising perplexes her condition again when

she is married to Phillotson. Only after her marriage she learns that a legal marriage as the most basic and contractual unit of the existing social order authorizes a husband complete control over his wife. Thus, she rejects it and goes to Jude to live with him as equal comrades. However, the fact that Jude is unable to resist his bodily passions towards other sex disconcerts Sue and she is cornered to surrender herself to his sexual wishes after Arabella's reappearance in their lives. This surrender ultimately denies her the possibility of a gender-free comradeship that she dreamed of pursuing together with Jude. What lies ahead of her after is a continuous downfall which is self-destructive for she now has to face the liability of child-bearing. Yet, despite that she becomes a sufferer from what she has rejected throughout her life at the very end of the novel, that she continues to fight back with self-determination and faith in herself proves that she is simply not "a rabbit caught in a gin." Her audacious efforts to guide her integrity are remarkable, even making her defeats all the more worthwhile.

Key Words Thomas Hardy, Sue Bridehead, Sexuality, Individuality, Identity, Victorian Women